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32호 : 141-157, 2023
https://doi.org/10.26548/scandi.2023.32.141

〈특별기고〉

스칸디나비아 연구와 나의 평생의 인연

최 정 신*

이 글은 본인이 2023년 10월 20일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특별강연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이 원고를 작성한 이유는 국내에서 그리 많지 않은 스칸디나비아 대상의 연구와 연구자들을 위하여 나의 경험이 후배 연구자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다.

1. 스칸디나비아와 나의 인연의 시작

나는 1991년 국내에서 “3대동거주택에 관한 중년층의 요구”라는 논문으로 주거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 당시 국내의 건축학과 주거학 분야에서는 노인주택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의 주택공급물량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어떻게 주택물량 부족을 충당하며 증가하는 노인세대를 위하여 적절한 주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노인세대가 기혼의 성년자녀, 특히 장남부부와 독립하여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는 개념은 유교적 “효”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명예교수

www.kci.go.kr

았고, 더욱이 국가적으로도 현재와 같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기초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부, LH, SH 등의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노인세대가 기혼 성년자녀 세대와 동거하며 가족부양을 위주로 생활하되, 동거세대 간 갈등을 줄여주는 주택설계 방식을 공모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현실화해보려는 노력이 대두되던 시대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그렇게 구상되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국내의 노인주택으로 선두적으로 잡고 보니 사회적으로 노인주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 부족하거니와 국내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도 전무한 상태여서 논문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노인주택이나 노인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와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연구와 자료를 어렵게 구하여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학문적 갈증이 심하였다. 따라서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고 그동안 책으로만 보았던 스칸디나비아로 직접 가서 공부해 보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유명대학의 건축학과에 입학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 당시 이메일도 없었던 시대에 통신은 오로지 국제우편으로 왕래하였으니 한번 통신이 되려면 편지가 가는 데 한 달, 오는 데 한 달로 느리기가 한이 없었으나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1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나는 1994년 10월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왕립미술아카데미 건축대학 가구와 실내디자인학과(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School of Architecture, Department of Furniture and Interior Design)의 학부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 떠나게 되었다. 사실은 덴마크 왕립미술아카데미의 입학허가서가 가장 먼저 도착하여 반가워서 얼른 수락한 것이었지만, 그 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대학에서도 입학허가서가 차츰 도착하였다. 나의 스칸디나비아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덴마크 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 나의 지도교수는 마노 구딕슨(Marno Gudiksen)으로 그의 세부 전공은 노인주택과 가구디자인이었다. 나는 그 당시 이미 40살이 넘은 나이 든 학생이었으나 동양인이 드문 덴마크인들의 눈에는 내가

www.kci.go.kr

아직도 젊고 어린 학생으로 보여서 다행이었다.

이 곳에서의 내 소속은 인테리어와 가구디자인학과였으므로 그에 맞추어 덴마크의 전통주택과 전통가구디자인을 연구주제로 잡았다. 마노 구딕슨 교수님의 지도 방식은 처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고 논문작성 스케쥴을 작성해오도록 한 다음, 매주 한 번씩 연구실에서 단독으로 만나서 연구수행을 위하여 견학할 곳과 만나 볼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고 담당자들과도 전화로 직접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답사하고 온 결과를 보고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며 다음 견학지를 연결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이러한 교수님의 지도아래 남한 크기 정도의 덴마크 전국을 종이지도를 가지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직접 답사하면서 덴마크의 전통주택, 전통가구의 디자인, 배치 등을 스케치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 핸드드로잉 등을 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덴마크 전국을 답사 여행하는 일은 당일로 끝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며칠씩 지방에 머물면서 민속박물관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야외에서 자료수집을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박물관 안에서 귀중한 수장자료를 온종일 사진촬영 하거나 스케치, 혹은 핸드드로잉 하였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일반 카메라로 슬라이드 촬영을 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핸드드로잉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물관 실내에 비치된 전통가구에 대한 대부분의 소장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귀중한 자료들이었으나 담당자들은 내가 소지한 왕립미술아카데미의 학생증,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전화를 통하여 멀리 동양에서 온 유학생에게 귀한 자료들을 아낌없이 공개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에게 덴마크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하여 그들의 집에서 나를 무료로 숙박할 수 있게 도와준 나이 많은 건축보수학과 학생 톰 부룬(Tom Bruun)의 고마움은 아직도 갚을 길이 없다. 또한 덴마크 전통주택 전문가인 건축보수학과의 에릭 한슨(Erik Hansen) 교수님 부부, 쾨에(Køge) 박물관 학예사 군나 솔뱅(Gunnar Solvang)씨 부부, 본홀름(Bornholm) 박물관장 헨릭 벤실(Henrik Vensild)씨 부부와의 인연은 이 때에 맺어져 내가 덴마크 코펜하겐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개인적인 친구로 남아있다. 그러나 에릭 한슨 교수님 부부는 어느새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분들의 다정함이 그립기만 하다.

www.kci.go.kr

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 나의 논문은 “한국의 조선조 가구와 덴마크 전통가구 장식의 특성 비교” 로 아카데미에서 논문 인쇄 비용 100부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었다.

<그림 1> 덴마크 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의 나의 연구자료와 논문



2. 나의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4대 주제

나의 평생을 통하여 수행한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주제는 주로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덴마크의 전통주택과 전통가구 디자인의 특성.
2) 스칸다나비아 국가(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복지 제도와 노인주택의 발달-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
3)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코하우징의 발달과 노인용 코하우징의 적용.
4)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3.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교와의 인연

1995년 가을, 나는 코펜하겐을 떠나 스웨덴 예테보리(Göteborg)에 있는 샬머스 공과대학교 건축대학 주택디자인학과(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chool of Architecture, Department of Housing Design)의 객원 연구원으로 지원하여 지도교수인 이언 폴손(Jan Paulsson)교수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노인주택, 장애인 주택과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자였다.

스웨덴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예테보리는 수도 스톡홀름 다음으로

www.kci.go.kr

큰, 스웨덴 제2의 도시로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두 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여기에서 비로소 나의 박사논문 작성 시의 궁금증이었던 스칸디나비아,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주택, 장애인 주택,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 노인용 코하우징 등을 이언 폴손 교수와 함께 연구하고 답사하며 1996년까지 1년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내가 처음 만나는 새로운 주제로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스칸디나비아의 발달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주택, 장애인 주택, 코하우징 등에 대한 주제는 나의 연구 의욕을 자극하였고, 도서관에서 한없이 많은 자료를 끝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영어로 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스웨덴어로 된 것들이 많았는데 나는 스웨덴어를 모르므로 주로 영어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언 폴손 교수님께 직접 묻거나 그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도움, 또는 구글 번역기의 신세를 많이 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알고 싶었던 정보를 얻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보람되고 즐거웠다.

샬머스에서의 나의 신분은 이제 학부 학생이 아니라 객원 연구원이었으므로 학교에서 지도교수 옆방에 개인 연구실을 배정해주었고 컴퓨터는 물론, 모든 문방구와 프린터를 무료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직원용 열쇠까지 주었다. 샬머스에는 큰 식당이 3개나 있었지만 학과마다 독립된 부엌이 있어서 원하면 거기에서 집에서 싸 온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다. 학과 부엌에는 무료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냉장고, 컵, 접시, 포크와 나이프 등의 기본 집기가 마련되어 있었고 설거지는 자율적인 당번제로 하였다. 전체 관리는 학과 비서가, 그리고 비용은 학과에서 부담하였다. 내가 느낀 샬머스 전통의 인상적인 일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두 번, 학과 부엌에서 학과 구성원 들이 모두 모여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다는 점이었다. 이 모임은 15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모여 커피를 마시며 쿠키 한두 개를 먹으며 짧은 인사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의 학과 구성원들이 잠깐 만나 휴식하고 인사를 나눈 후, 15분 후에는 각자 자기 연구실로 돌아간다. 학과에서 축하할 일이 생겨도 케이크나 꽃다발을 준비하여 이 모임에서 함께 나눈다. 바쁜 대학의 일상에서 구성원들의 안부를 나누는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 샬머스에 갔을 때 여기

www.kci.go.kr

에서 소개를 받았고 곧 구성원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이 때 이언 폴손 교수님의 석.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카타리나 알름베리(Catarina Almberg)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어 그 후 우리는 서로 집으로 초대하고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절친이 되었으나, 이제 그녀는 먼저 세상을 떠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샬머스에서의 연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나는 몇 곳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수 차례에 걸쳐 다시 샬머스로 돌아가 연구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 길게는 1년간, 8개월간 또는 방학동안 2개월간 등등.

나는 2000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동료들과 공동으로 “치매노인 그룹홈”을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게 됨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2001년에 다시 샬머스의 공간과 프로세스 학과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1년간 연구하게 되었다. 이 결과물은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의 개발과 관련 정책(김대년, 권오정, 조명희 공저)”으로 집문당에서(아산연구재단 연구총서 119집) 2003년에 출판되었다.

그 후 2001년도”북유럽 국가들의 시니어 코하우징 프로젝트의 공동공간 계획과 적용 “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술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수주하게 되어 다시 2002년에 샬머스의 객원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 결과물은”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Choi, J.S. 2004,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004년에는 이언 폴손 교수님과 국제공동연구로”스칸디나비아의 노인용 코하우징 “을 주제로 다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연구비를 수주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샬머스의 공간과 프로세스학과에서 연구하였다. 이 결과물은”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이언 폴손 공저) “으로 집문당에서(아산재단연구총서 201집) 2006년에 출판되었다. 그리고 후에 이 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쉽게 편집하여”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 코하우징(이언 폴손 공저) “으로 2015년에 어문학사에서 출판되어 그 해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 콘텐츠작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가톨릭대학교애서 연구비를 받아 “스칸디나비아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연구”를 주제로 또 다시 샬머스 건축학과의 교환

www.kci.go.kr

교수로 가서 1년간 연구하게 되었다. 이 때는 나의 가톨릭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연구년 휴가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느낌이 남달랐고, 그 동안 몇 번이나 샬머스에 되돌아 갈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이언 폴손 교수님과 리스베스 비르예르손(Lisbeth Birgersson) 교수님은 이미 은퇴하셔서 다른 교수님이 나를 지도교수로 맞아주었다. 샬머스에 도착한 며칠 후 학과 커피모임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리 스트리드(Marie Strid)가 나를 다른 학과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해 주었을 때, 나는 1995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 샬머스에 연구하러 왔었고 그 동안 많은 스웨덴 친구들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스웨덴은 나의 제2의 고향과 같다고 말하였다.

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여러 가지 학문적 교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나의 연구주제인 노인주택,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연구와 답사를 1995년부터 2010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수행하였다. 답사 장소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오덴세, 스웨덴의 솔렌투나,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그리고 노르웨이의 오슬로 등지로, 스칸디나비아 주요 3개국을 두루 방문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600부 정도의 설문지를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영어, 스웨덴어, 덴마크어로 작성하여 각각 자국의 언어로 배부하였는데 대부분의 코하우징 단지에서 좋은 호응도를 보여서 설문 응답율이 매우 높았다. 이 연구에서 스톡홀름의 SABO(우리나라의 LH와 유사한 국립기관으로 스웨덴 전역의 임대주택 설립회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스웨덴 전국의 임대형 코하우징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주었고, 한편으로는 스웨덴의 대형 민영주택회사인 시니어고든(Sniorgården)에서도 분양형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 주고 노인용 코하우징 답사, 주민 인터뷰 등을 도와주어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SABO에서는 종전에 임대형 시니어 코하우징 주민들의 요구를 조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설문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향후 계획의 지표로 삼겠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나중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용 코하우징의 생활만족도, 이주 동기, 주민특성 등을 연구하는 자료로 귀중하게 쓰였다.

www.kci.go.kr

내가 스웨덴에서 귀국한 후, 200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비로소 노인복지와 노인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두되었으나 그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와 노인주택대안이 발달된 외국의 사례를 많이 필요로 하였으나 직접 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때에 나의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연구와 경험이 사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치매가족회에서"세계 치매의 날 "을 맞이하여 스웨덴의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와 주택대안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여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어려움에 처한 치매가족들의 절실한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대형 민영건설회사들에서는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중산층을 위한 유료 노인주택 공급을 사업화하는 것이 수익 타당성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해 왔으며, 요양원 관련 복지 단체에서는 인간적인 요양원 건축설계 방안 등을 자문해왔다.

나는 그들의 정보 부족에 대한 목마름을 이해하였고 기꺼이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양한 학회에서 논문 발표와 자문 등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위해 활동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중산층을 위한 유료 노인주택이 낯설지 않고, 병원 분위기였던 요양원 건물 디자인이 가능한 한 소규모의 가정적인 분위기로 설계되는 점, 수명연장과 함께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적용, 재택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점 들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나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 비로소 코하우징(cohousing:공동체 주택)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코하우징은 현대적인 이념을 도입한 공동체 주택으로 덴마크에서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된 후, 스칸디나비아와 북미제국에서 꾸준히 성장되어 온 주거대안이다. 코하우징은 한 단지 안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의 가구들이 모여서 공동시설과 개인 주택을 짓고 공동활동을 영위하며 생활하면서 주민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정서적,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거 대안이다. 그러나 코하우징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주거 대안이었고 그에 대한 정보나 국내

www.kci.go.kr

사례도 없었으므로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주택정책과 산하에 공동체주택 담당 부서를 두고 선두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나에게 코하우징에 대한 자문과 연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왔으므로 나의 연구주제인 코하우징,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학문적 정보를 발표회, 상담, 자문 활동 등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나눌 수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코하우징에 관심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에 설치된 공동체주택 지원 허브(집집마당)의 지원으로 공동체주택 교육이나 공동체주택 사업인증을 받아 건축비의 대출과 보증 등의 실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주변에 크고 작은 코하우징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의 코하우징 저서 “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 코하우징”(이언 폴손 공저)과 “세계의 코하우징”(홍서정 공저)이 일반인들에게 코하우징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스칸디나비아-한국과의 교류추진

1) 국내에 스칸디나비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개최

나는 스웨덴에서 돌아온 후 스칸디나비아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의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적 연구의 가교를 맺는 데 힘을 쏟았다. 1996년 스웨덴에서 귀국하자마자 1997년 가을에 2주간에 걸쳐 덴마크의 마노 구딕슨 교수님과 스웨덴의 이언 폴손 교수님을 초청하여 대한건축학회, 실내디자인학회 등에서 초청 강연을 개최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내에 스칸디나비아의 건축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때의 초청 비용(항공료와 강의료)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제공하였고 숙식은 나의 아파트에서 홈스테이로 제공하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그들은 한국의 가정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고 나의 가족들과도 더욱 친근해질 수 있었다. 두 분 교수님들은 실제로 나의 지도교수들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나를 통하여 두 분이 서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공식행사를 끝내고 국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www.kci.go.kr

전통주택과 현대건축을 답사하고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하였다.

2) 샬머스-주거학 연구회 교수 연계 세미나

1999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2주간 주거학 연구회 교수 10여 명이 스웨덴을 방문하여 샬머스의 기숙사에 머물며 예테보리 시내에 위치한 유서 깊은 공예박물관 대강당에서 양국의 전통주택, 노인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2개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후에는 스웨덴의 노인주택, 치매노인 그룹홈, 생태주택, 장애인용 개조주택, 장애인 아동학교, 유니버설디자인제품 생산공장, 예테보리대학교 가정교육과 등을 답사하고 전문가들과 면담도 가졌다.

이 때의 비용은 샬머스에서 체류비와 세미나 개최 대관료, 답사 교통비 등을 지불해 주었고 항공료는 한국인 교수들이 각자 지불하였다.

3)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생태건축 탐방

2000년 7월 샬머스의 이언 폴손 교수님, 샬머스 건축학과 학생 헬게 쾨스터(Helge Køster-독일인 교환학생으로 독일어 통역과 답사 보조역할), 주거학 연구회 교수들이 연계하여 2주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의 생태건축 탐방을 가졌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생태건축 전문가로 유명한 카셀대학교(Kassel University) 건축대학의 게르노트 민케(Gernot Minke)교수님의 연구실과 자택을 방문하여 진흙 건축을 생태건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견학하였다. 민케 교수님은 아프리카의 전통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진흙 건축을 현대 건축에 적용한 전문가이다.

독일에서는 생태건축으로 유명한 베를린, 카셀, 하노버, 프라이브르크, 몽세니 지역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계를 활용한 생태건축의 사례를 견학하였다. 한편,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대학교 기숙사, 에술인 마을, 생태마을 등을 방문하여 독일보다는 보다 자연적인 생태건축 사례를 견학하였다. 이 결과는 대한건축학회에서 학술대회와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2003년에 도

www.kci.go.kr

서출판 발언에서 “친환경 주거”로 출판되었다.

4) 노르딕 학회 참가

2003년 여름에 본 학회의 회원이고 남 스톡홀름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최연혁 교수님의 연계로 남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스웨덴. 일본, 한국 3개국이 참가하는 노르딕 학회가 열렸다. 여기에 한국에서 10여 명의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원들이 참가하였고 일본과 스웨덴의 학자들도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스칸디나비아 관련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5) 스웨덴 샬머스 대학교 교수들과 국내 연구자와의 교류 추진

2007년 여름에 샬머스 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5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APNHR(Asian 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학회와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스칸디나비아학회주최 한국-스웨덴 국제학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학자들과의 교류를 가졌다. 그들은 학회가 끝나고 서울의 북촌, 안동, 경주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주택과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외에 유당마을, 순애원, 노블카운티, 가양 시니어타워, 분당 시니어타워 등의 국내 노인요양 시설과 노인주택을 방문하였다.

<그림 2> 서울에서 열린 APNHR(아시아주거학회)과 스칸디나비아학회주최 한국-스웨덴 국제학회에 참석한 양국 연구자들



www.kci.go.kr

6) 샬머스 대학교 세미나 초청 강연

2008년 10월에 샬머스 대학교 건축대학에서"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주택과 시설 "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을 때, 나는 한국 측의 강연자로 초청받아 한국의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과 주택 대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을 노르딕 국가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5. 2013년도 샬머스 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로 지명

나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은 2013년도에 샬머스 대학교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로 지명된 일이었다. 샬머스 대학교는 1829년 영국의 상인이었던 윌리엄 샬머스(William Chalmer, 1748~1811)가 스웨덴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막대한 부를 얻게 되자 무역 항구도시인 예테보리에 설립한 사립대학교로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깊은 대학교이다. 스톡홀름의 KTH(왕립공과대학교), 룬드의 LTH(룬드공과대학교)와 함께 예테보리의 CTH(샬머스공과대학교)는 스웨덴의 유명한 3대 공과대학교 중의 하나이다. 샬머스는 예테보리 시내와 홀멘(Holmen)에 2개의 현대적인 대형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10,000여 명 정도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스웨덴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유학와서 공부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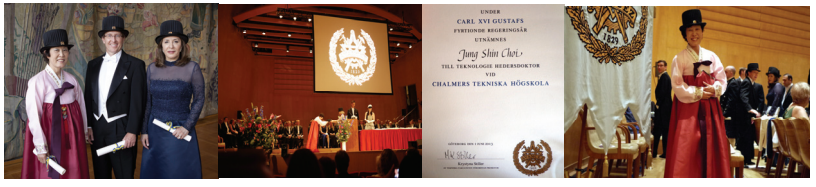
샬머스 대학교에서는 1940년 이래 내가 학위를 수여받은 2013년까지 179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선발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 왔다. 그 과정은 학과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해마다 2~3명의 수여자를 선발하고, 학위수여자는 칼 구스타프 16세(Carl Gustafs XVI) 국왕이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증을 학교를 통하여 받는 것이다. 2013년에도 나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의 교수 2명이 선정되어 명예박사 학위증을 수여 받게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학자가 이 학위를 수여 받은 일은 내가 최초로서 이 것은 나 개인은 물론, 가톨릭대학교나 한국으로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www.kci.go.kr

샬머스 대학교에서 내가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로 지명된 이유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샬머스와 교류한 경력,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한국-스웨덴 간의 학문적 교류에 이바지한 공로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노인주거, 코하우징, 생태주거 등과 같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2013년 6월 1일 스웨덴 예테보리 콘서트 홀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샬머스 대학교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대단하였다. 우선 고국으로부터 예테보리까지 왕복 항공권(비즈니스석, 동반자 포함 2인분)을 보내왔고 학위수여식 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 간의 5성급 호텔 비용 전액(동반자 포함 2인분), 박사학위 모자와 박사학위 금반지 개별 주문, 학위수여식 전야에 역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자와 보직교수 등, 수십 명이 참석하는 총장 주재 공식 디너 초청(총장 공관), 학위수여식 당일 100여 명이 참석하는 공식 디너와 여흥 초청(홀맨 캠퍼스), 학위수여식 전후 일정 시내 교통편 제공 등, 매우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림 3> 샬머스 대학교 2013년도 명예박사학위 수여식과 학위증



6. 스칸디나비아 연구 관련 출판도서

나의 스칸디나비아 연구에 관련된 출판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주거학연구회 공저, 2000년
2) 유료 치매노인의 그룹홈 개발과 관련 정책, 김대년, 권오정, 조명희 공저, 집문당, 아산재단 연구총서 119집, 2003
3) 친환경주거, 주거학연구회, 발언, 2003

www.kci.go.kr

4)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이언 폴손 공저, 집문당, 아산재단 연구총서 201집, 2006
5) 굿모론 예테보리, 어문학사, 2015
6) 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 코하우징, 이언 폴손 공저, 어문학사, 2015
7) 코하우징 공동체, 홍서정 공저, 어문학사, 2017.

7.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논문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나의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덴마크 전통주택과 가구에 대한 연구논문

* 최정신, 마노 구딕슨(1996). 덴마크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5). 91. 85~97.

* 최정신(1997). 조선조 가구의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의 특징-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 57~66.

2) 스칸디나비아 치매노인 그룹홈 관련 연구논문

* 권오정, 김대년, 조명희, 최정신(2000).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5). 41~49.

* 김대년, 최정신, 조명희, 권오정(2000). 개발이념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용 그룹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7). 21~30.

* 조명희, 권오정, 최정신, 김대년(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9. 33~65.

* 최정신, 김대년, 조명희, 권오정(2000).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 그룹홈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3~166.

* 최정신(1999).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의 외국사례-스웨덴의 경우-99회 세계 치매의 날 기념 세미나. *치매의료복지시설 케어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 발표논문집*. 50~62.

* 최정신(2000). 생활과학적 관점에서 본 주거디자인의 적용. 북유럽 노인

www.kci.go.kr

주택 디자인. *경희대 생활과학연구소 제4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 스칸디나비아 코하우징 관련 연구논문

* 최정신(2003). 덴마크 자치관리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1(4). 1~19.

* 최정신(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2). 129~138.

* 최정신 (2005). 스웨덴과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비교. *주거학회논문집* 16(6). 149~160.

* 최정신. 조재순(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7~128.

* 최정신(2013).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 2001~2010년 10년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81~92.

* 최정신. 조재순(2016).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공동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의 시계열적 차이. 2001~2010년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1). 1~12.

* 최정신(2016). 성공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침:덴마크와 스웨덴 코하우징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60). *대한건축학회* 38~47.

* 최정신. 조재순(2018). 스웨덴 +40코하우징 주민의 1인 가구 여부 및 여성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코하우징 삶의 차이. *스칸디나비아 연구* 21. 119~164.

* 건축도시연구소 AURI(2018). 연구용역 외부연구원: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 건축도시연구소 AURI(2018). 연구용역 연구자문:리빙랩을 활용한 노인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 개발연구.

* LH-주택학회(2019~2020) 연구용역 외부연구원: 웰빙 커뮤니티 주거단지 추진을 위한 주거이동 분석 및 주거모델 개발구상 연구.

* Choi.J.S.& Paulsson.J. (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www.kci.go.kr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Proceedings of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Association of Nordic Studies.* Sweden, Japan and Korea. Stockholm, Sweden.

* Choi,J.S.(2004a). Perception of Senior Cohousing by Korean 50s Living in Seoul Area. *Proceedings of ENHR International Conference.* Cambridge. UK.

* Choi. J.S.(2004b).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

* Choi, J.S. & Paulsson J.(2011). Evaluation of Common Activity and Life in Swedish Cohousing Uni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Korean Human Ecology. 12(2). 133~146.

* Choi, J. S.(2013). Why Do People Move to Cohousing Communities in Sweden?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40 Cohousing and the Mixed- age Cohousing? *Architectural Research.* Architectur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5(2). 77~86.

8. 은퇴 후의 생활

나는 가톨릭대학교에서 33년 간 교수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2014년 1학기 말에 은퇴하였다. 은퇴와 동시에 나는 집에서 가까운 여의도 한강 변에 작은 개인 연구실을 마련하여 서울시, LH, AURI, 경희대, 은평구청 등에서 공동체주택(코하우징)관련 프로젝트의 연구보고서를 집필하거나 서울시 공동체주택 관련 자문, 특강, 원고 집필 등을 하며 재직 시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으론, 2010년 샬머스에 연구년을 갔을 당시에 취미활동으로 예테보리 평생교육학교(Göteborg Folk Highschool)에서 배우기 시작한 은공예(silver crafts)를 한국에서도 계속 수강한 후,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친구 두 명과 마포구 공덕동에 조은공방을 마련하여 작업하고 있다. 조은공방에서는

www.kci.go.kr

2014년 여름 덴마크 북부 힛샬스(Hirtshals)에 위치한 “Den Gamle Station(the Old Station)” 갤러리에서 덴마크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서울 청담동의 아르케 갤러리와 공덕동의 조은공방에서 해마다 한 번씩 정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처럼 1994년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덴마크 코펜하겐에 학생으로 가게 된 한 번의 기회가 평생 끊을 수 없는 나와 스칸디나비아의 영원한 인연이 되었다.

성명: 최정신
소속: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명예교수
E-mail: jjschoi@catholic.ac.kr

www.kci.go.kr

www.kci.go.kr